

## 치마길이의 연령규범에 관한 연구

김         인         숙

경희대학교 가정대학 의상학과

### A Study on the Age Role Norm of Skirt Length

In sook Kim

Dept. of Clothing & Textiles, Kyung Hee University

(1995. 2. 27 접수)

#### Abstract

When age-role is being confused and fashion is as whimsical as these days, the norm on the length of the skirt can be a matter of controversy. This study aimed to see if there exists decisive norm on skirt lengths according to the age of feminine stimuli and the sex and age of perceiver. It also aimed to find out whether the norm of the individual perceiver is influenced by the assumed norm of generalized others. Questionnaire including linedrawings of feminine lower body was given out to be marked with age-proper length of skirt. Results revealed existence of certain length norms according to the age of the stimuli. Norms also varied according to the age of the perceiver and interaction effects among the age, sex of the perceiver and the age of the stimuli existed. Assumed norms of the generalized others were different from the actual norms of the individual. Interaction between the ages of the stimuli and perceiver affected the difference between the actual individual norm and the assumed norm of the generalized others.

#### I. 서         론

모든 사회에는 인간발달의 매단계에 대한 의복규범이 있다. 대부분의 사회는 사람들이 그들의 연령에 알맞는 옷차림을하도록 요구하며 연령에 맞지 않는 의복을 착용하는 것에 대해 부정적 반응을 보인다. 그러나 한편, 오늘날의 사회는 다양성을 그 특징으로 하며 의복 및 디자인에 대한 평가는 개별화, 개성화를 중요한 평가기준으로 삼고 있다. 또한 현대사회의 고속화, 정보화, 기술화의 특징은 적응력과 신기술, 속도를 강조하며 그

결과 이와 같은 특성을 지닌 것으로 간주되는 신세대에 대한 예찬, 나아가는 청춘예찬적 분위기가 강하다. 사회 속에서 일어난 변화는 필연적으로 사회규범에 영향을 끼치며 이에 따라 의복규범 또한 변한다. 시대정신의 재빠른 포착을 생명으로 하는 복식산업계는 이와 같은 경향을 적극적으로 수용하여 오늘날의 한국의류시장은 20대와 30대 고객에 관심을 집중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본 연구는 의복형태의 중요한 요소 중 하나인 길이에 대한 연령별 규범이 최근에는 어떤 내용을 지니고 있는지를 밝힘을 목적으로 한다. 또한 의복의 연령규범이

지각자의 성별과 연령에 따라 다르게 나타나는지도 살펴본다. 부가적으로 한 개인이 지닌 의복규범이 전체사회의 것이라고 추정하는 일반적 타자의 규범의 영향을 받고 있는지도 살펴보려고 한다.

연구의 결과 밝혀질 연령별 길이규범은 의류생산자를 위해서는 상품시장의 다변화를 도우며, 상품기획의 정확성을 기할 수 있게하고, 소비자를 위해서는 연령이 고려된 다양한 디자인에 접할 수 있도록 하는데 그 의미가 있다. 일반화된 타자와 개인의 규범간 유사성 정도에 관한 연구결과는 오늘날과 같이 개별화, 다양화가 중시되는 사회적 분위기 속에서 개인이 그가 추정하고 있는 일반적 규범을 얼마나 중시하며 그와 일치하려고 노력하는지, 아니면 자신을 그것으로부터 어느정도로 자유스러운 존재로 인식하는지 살펴봄으로써 미래의 패션의 동질화, 혹은 다원화경향 중의 어느 방향에 보다 가까워지고 있는지 추정해보려 한다.

## II. 이론적 배경

### 1. 의복의 연령규범

연령증가에 따른 지혜의 축적과 기능의 확장이 중시되던 전통사회에서는 연령에 적합한 옷을 입는 일은 성별에 맞는 옷을 입는 일만큼이나 중요한 일이었다. 일찌기 로마에서는 老少에 따라 튜닉의 길이나 토가의 색이 달랐으며, 중세나 근세를 통해서도 surcot, cotehardie, houppeland 등의 길이, 색, 형태는 연령에 따른 차이를 보였다. 일정한 연령에 도달하면 의복 일습과 머리형태를 바꾸어 주는 성년식은 연령증가를 통한 심신발달과 의복과의 관계를 도식화 시켜주는 사회적 풍습의 한 전형이었다고 할 수 있다.

연령에 관한 의복규범 중 가장 기본이 되는 것의 하나가 길이에 대한 규범이다. 일반적으로 유아를 제외하고는 옷길이는 연령에 비례하여 길어진다. 아동이 최초로 걸기시작할 때의 옷길이는 활동의 용이성을 위해 가장 짧다. 그러나 사춘기에 달하여 이차적 성징이 나타나기 시작하면 의복의 정숙성기능을 강조하여 점차 신체를 덮는 방향으로 변하게된다. 따라서 특별한 유행이나 특정 TPO를 제외하고는 길어지는 치마길이는 연령의 증가를 의미한다고 볼 수 있다<sup>1)</sup>. 미국에서는 이차대전 전 까지만 해도 취학전 소년은 짧은 바지를, 국민학생들은 무릎길이바지(knickers)를, 중학생 이상은 긴

바지를 입었다고하며,<sup>2)</sup> 소녀들에게는 1860년 이전까지는 명확한 연령별 치마길이 규범이 존재해서 성인들 사이에서는 크리노린이 한창 유행하던 1868년도의 Harper's Bazaar의 논설에서는 4세에서 16세 까지의 소녀들의 스커트 길이를 무릎바로 밑에서 부츠의 맨 위 단추사이를 자세하게 나눈 연령별길이 지침이 되는 도표를 제시하였다고 한다<sup>3)</sup>.

그러나 이차대전 이후 연령에 대한 사회적 태도는 급변하고 있다. 1940년대 중반에 이르면 위에서 본 소녀의 바지길이 규범, 소녀의 치마길이 규범은 약화되어 무릎길이 바지가 사라지게 되고 소녀들의 연령에 따른 치마길이도 더 이상 지켜지지 않게 된다. Bush등은 이 현상이 아동을 하나의 가치있고 독립적인 존재로 보는 당시의 문화적 분위기 탓이거나 아니면 중산층의 증가로 말미암아 새로 생성된 제반 가치규준의 평준화 추구 경향에 의한 것일 것이라고 본다<sup>4)</sup>.

이와같은 평준화 경향은 20세기말에 이르면서 더욱 가속화 되고있다. 현대사회는 혁신적 사고, 신속한 적응력, 전통에 대한 도전 등을 요구하고 이러한 시대적 여건은 연륜이 주는 예지나 관조력 보다는 짚음이 가진 변신과 속도를 사회적 성공을 위한 중요한 자질로 간주한다. 청년스타일이 유행하던 1960년대에는 10대와 성인의 스타일이 하나로 되고,<sup>5)</sup> 짧은 주부들은 물론 중년이나 장년층 여자들도 무릎 위 길이 치마를 입었다<sup>6)</sup>. 즉, 1940년대에 아동과 성인과의 의복길이 규범이 대폭 약화되었다면, 1960년대이래로 성인들 간의 연령규범은 혼란을 죬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사회적 분위기는 1990년대의 기성복디자인 시장에 현저하게 드러나고 있다. 새로 출범하는 대부분의 기성복 상표가 40대 이하를 그들의 타겟으로 삼고있을 뿐 아니라 더 나아가서는 아예 '無연령(ageless)'의 개념을 도입하기도 한다. 즉, 연령을 시장세분화의 중요한 기준으로 삼지않고 감성을 핵심적인 축으로 삼아 시장을 오로지 감성과 가격만으로 세분화시키는 전략을 구사한다<sup>7)</sup>. Vivien Westwood, J.P. Gaultier 등은 그들의 짧은이용 옷선전에 노인모델을 등장시킴으로써 영원한 짚음, "ageless"의 테마를 암시한다<sup>8)</sup>. 이것은 복고주의를 이용하여 모녀 혹은 부자 세대를 '짝친 타겟(paired target)'으로 묶어 공략하는 상술에도 그 원인이 있겠으나 보다 근본적으로 고령화를 저항하는 사회 분위기의 결과라고 할 것이다.

그러나 한편 전통적 연령규범이 현재 얼마나 약화된 것인지 그 정도에 대해서는 아무도 확신있게 말할 수 없다. 연령에 맞지 않는 의복에 대해서는 착용자의 심리적 미성숙, 감상성, 짚음에 대한 집착, 연령역할에의 부적응성 등등의 부정적 성격특질을 부여하는 사회적 태도가 아직도 분명히 존재한다. 연령에 맞지 않는 의복 착용을 비난하는 기사가 유행전용 잡지에 실리는가하면, 연구논문에서도 연령규범의 존재와 규범적 옷의 형태가 보고되고 있다. 즉, 10대 소녀의 끈없는 검정 벨벳 드레스, 40대 여인의 뺀치는 치마나 허벅지 중간길이의 청바지, 50대여자의 가죽점퍼와 블랙진, 70대 여자의 비키니바지, 프릴과 큰단추가 달린 미니드레스등이 연령규범에 부적합한 옷으로 지적되고 있다<sup>8)</sup>.

의복의 연령규범은 의복의 성별규범보다는 약한 것이 사실이며 이것은 연령이 성별보다 식별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그러나 의복의 연령규범은 의복의 상징기능을 이용해 생소한 자극물(cue)의 연령식별을 용이하게 한다는 사회적 기능 외에도 연령별 신체적 특징과 잘 조화되는 디자인을 우리들의 지각이 선호하는데서 기인하기도 한다. 따라서 연령이 존재하는 한 의복의 연령규범은 어떤 형태로든 존재한다고 본다. 그러나 짚음을 예찬하며 짚은 감성을 미적 기호의 표준으로 삼아 삼미적 기준의 획일화를 꾀하고 있는 것 역시 중대하고 있는 이 시대의 새로운 경향이다. 연령규범은 수정 혹은 혼란의 단계에 서 있다. 본 연구에서는 치마에 적용되는 연령별 길이규범을 파악하고 또한 이에대한 지각자 성별, 연령별 차이를 밝힘으로써 현재의 연령규범의 내용을 알아보고자 한다.

## 2. 의복규범과 일반화된 타자의 영향

Mead의 사회적 상호작용 이론에서 사회질서의 심리적 기초의 하나는 감정이입(empathy)이다. 즉, 이상화된 사회화 과정은 다른 사람의 감정과 기대에 대한 통찰력을 지니고 사회적 상호작용과 대인관계에 성공적으로 참여할 줄 아는 성숙한 사회적 존재로 만들어져가는 과정을 뜻한다. 사회화되어가는 동안 인간의 상호작용은 차츰 상징적인 성격을 띠게된다. 이것은 서로의 몸짓이 무엇을 ‘의미’하는지에 대한 이해의 ‘공유’에 입각한다. 이와같은 공유성이야 말로 의사소통에는 본질적인 것이며, 인간이 이루는 모든 사회문화적 구조의 기초가 되는 것이다<sup>9)</sup>.

인간은 감정이입을 통해 사회적 규범을 구성하는 옳고 그름의 보편타당성도 공유하게 된다. 이때 그 준거가 되는 것은 ‘일반화된 타자들(generalized others)’이다. 일반화된 타자란 준거집단의 개념과 유사하나 보다 큰 개념이며 보다 추상화된 개념이라고 할수 있으며, 아담스미스의 ‘공정한 관찰자(impartial spectator)’의 개념과도 유사하다<sup>10)</sup>. 즉 이 개념은 한 개인이 전체사회를 대표하는 일반적인 타인들이 어떻게 행위하는지를 관찰하고 그 규칙과 원칙을 수용하여 자기의 것과 동일시하는 경향이 있음을 의미한다. 이 개념은 또 인간의 지각과 판단 대상인 사회현상의 대부분이 그 성원에게는 같은 의미를 갖는 것을 뜻하는데 이는 대상의 속성때문이 아니라 그 대상이 사회성원들의 공통된 경험을 거쳐서 같은 의미로 규정된 것이기 때문이다<sup>11)</sup>. Mead는 어떤 행위든 남들의 기대라는 관점에 의해 조정된다고하고 인간의 사회적 환경은 개인적인 차원에서 형성되는 것만은 아니고 집단적인 차원에서 이루어지는 예가 대부분이지만 이러한 집단적 쟈관성도 결국은 각 개인의 성격에 따라 다시 규정되는 것이라고 한다. 즉, ‘일반화된 타자’의 규범과 ‘개인의 규범’은 면경적歸還(feedback)의 과정을 거치면서 끊임없는 재구성되어 나간다.

Mead를 위시한 상징적 상호작용학파의 타자를 반영한 자아, 즉 면경자아이론은 의복연구에서는 외모와 의복을 통한 자아개념형성 연구에 적용되었다. Miyamoto와 Dornbusch<sup>12)</sup>는 자신의 외모에 대한 평가가 다른 사람들의 평가 및 추정된 평가에 의존한다는 가설을 입증하려고 했다. 실험 연구 결과 그는 1. 자아평가는 집단내 개개인의 실제 평가와 상당히 유사 2. 자아평가는 특정집단 소속의 구체적인 타자가 할 것으로 추정되는 평가와 유사 3. 자아평가는 추정된 일반적인 타자의 평가와 상당히 유사하다고 했다. 즉 자아평가는 어떤 특정인들의 자신에 대한 추정평가보다 추정된 일반화된 타자의 평가에 보다 가깝다고 결론지었다. Ryan<sup>13)</sup>은 개인의 자기자신의 외모에 대한 개념을 집단구성원들의 평가와 비교조사하여 자아평가가 집단의 평가와 대략 일치한다고 보고하고 있다. 일반화된 타자는 자아개념 뿐만 아니라 가치체계, 태도, 규범 등 사회를 대상으로 한 모든 인간행위에 거울로서 작용한다. 의복규범의 형성도 다른 규범형성에서와 같이 일반화된 타자의 영향을 받는다.

본 연구에서는 경험자들이 치마길이에 대한 집단적 연령규범을 공유한다고 보는지를 살펴봄으로서 현 시점에서의 개인의 일반적 규범에의 동조의 크기가 어느정 도인지를 살펴보며, 이러한 현상에는 성별, 연령별 차이가 있는지 여부를 살펴봄으로써 연령규범 변화의 방향을 예측하고자 한다.

### III. 연구방법

#### 1. 연구가설

##### 1. 치마길이의 개인적 규범에 대한 가설

(1) 치마길이의 연령규범은 존재한다.

(2) 치마길이의 연령규범은 지각자 성별에 따라 차이가 있을 것이다.

(3) 치마길이의 연령규범은 지각자 연령에 따라 차이가 있을 것이다.

##### 2. 치마길이의 자기규범과 일반화된 타자 간 차이에 대한 가설

(1) 자기규범과 일반화된 타자 간 치마길이의 연령 규범에는 차이가 있을 것이다.

(2) 자기규범과 일반화된 타자 간 치마길이의 연령 규범은 지각자 성별에 따른 차이가 있을 것이다.

(3) 자기규범과 일반화된 타자 간 치마길이의 연령 규범은 지각자 연령에 따른 차이가 있을 것이다.

#### 2. 연구도구

##### A) 용어정의

1. 치마길이의 연령규범 — 일정연령의 여성에게 적합한 가장 짧은 치마길이

2. 자국물의 연령 — 설문지에 제시된 신체소유자의 연령. 25세, 35세, 45세, 55세의 4종.

3. 일반화된 타자 — 개인적인 규범형성에 영향을 끼치는 전제사회. 설문지에서 “한국사회의 보통사람들”로 표현된 사람을 의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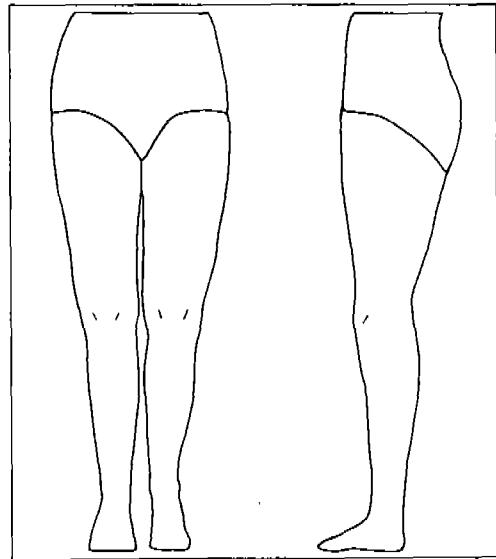
##### B) 설문지

여성의 하반신 정. 측면을 나타내는 4개의 동일한 윤곽도와 2종의 지시문으로 이루어졌다.

예비조사 : 대학생 20명과 대학원생 10명을 대상으로 치마길이에 영향을 끼친다고 생각하는 변인을 자유기입식으로 적어내도록 하였다. 가장 많이 지적된 변인은 신체조건, 유행, 기후, 상황으로 나타났다. 설문지의

지시문을 이에따라 조건화하였다. 신체조건은 체격표에따라 표준화 되었고, 유행은 1995년도의 미니스커트 유행의 조건, 기후는 조사시기인 10월로 자연히 고정되었으므로 상황의 제시만이 필요하여 일반적 외출상황인 ‘백화점 쇼핑’의 상황으로 고정하였다.

윤곽도 — 1992년도 공업진흥청 표준신체규격표<sup>14)</sup>에 의한 20대의 정. 측면 신체윤곽을 10:1로 축소제작했다. 각 연령별 표준체형으로 제작함이 가장 이상적이나 그 경우 연령 간길이 차이의 비교가 난해해지므로 가장 충분히 발육한 연령기, 즉 20대의 신체비율을 표준으로 정하여 상대적인 차이비교를 하기로 했다. 허리높이, 허리너비, 엉덩이 너비, 회음높이, 무릎마디 안쪽높이, 팔너비의 6부위의 표준치수가 사용되었다. 이 때 가장 중요한 기준이 되는 무릎마디 안쪽높이는 53.5cm이다 [그림 1].



[그림 1] 질문지에 제시된 윤곽도

지시문 1 : “25세에서 55세 이르는 다양한 연령의 여성들이 짧은 치마를 입고 백화점쇼핑을 위해 외출하려고 합니다. 여러분께서 각 연령에 적합하다고 생각하시는 가장 짧은 치마길이를 그림상에 수평선으로 표시해 주십시오.”

지시문 2 : “25세에서 55세에 이르는 다양한 연령의 여성들이 짧은 치마를 입고 백화점쇼핑을 위해 외출하

려고 합니다. 한국사회에서 보통사람들이 각 연령에 적합하다고 생각할 것으로 추정되는 가장 짧은 치마길이를 그림상에 수평선으로 표시해주십시오.”

### 3. 표집대상과 자료수집

표집대상 : K대학교 남녀대학생 244명, 학부모 170명.

표집대상의 연령, 성별 구성은 <표 1>과 같다.

<표 1> 표집의 연령, 성별 구성

	남자	여자	총인원(%)	
20대	115	129	244(59)	
40대	28	84	94(23)	170
50대	49		69(17)	(41)
60대	7		7(11)	
총인원(%)	199(49)	215(51)	414(100)	

40대이상의 여성은 주부가 80% 이상, 전문직, 사무직 및 기타 20% : 남성은 사무직 60%, 전문직, 자영업, 기타가 각각 10% 미만을 이룬다.

질문지 수집기간 : 1995년 10월 15일에서 30일까지.

### 4. 통계분석

기술통계, t-검증, 일원변량분석, 분산분석.

## IV. 연구결과

본 연구의 종속변수인 치마길이 규범과 추정된 사회규범 즉, 일반화된 타자의 규범을 자극물의 연령별로 평균, 최빈치, 최소, 최대치를 정리하면 <표 2>와 같

다.

### 1. 치마길이에 대한 규범

연구에 관련된 중요 변인과 변인간 상호작용을 종합적으로 살펴보기 위하여 치마길이 규범을 종속변수로 하고 단서의 연령, 지각자 성별, 지각자의 연령을 변인으로 하여 ANOVA를 실시하였다. 그 결과 자극물의 연령 ( $F=575.6$ ;  $df=3$ ;  $p=0.00$ ), 성별 ( $F=1.9$ ;  $df=1$ ;  $p=0.2$ ), 지각자 연령 ( $F=21.6$ ;  $df=1$ ;  $p=0.00$ )으로서 설명력 48%의 수준에서 독립변인의 주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두변인간 상호작용은 자극물의 연령과 지각자연령 사이에 ( $F=20.1$ ;  $df=3$ ;  $p=0.00$ ), 세변인간 상호작용은 자극물의 연령, 성별, 지각자연령 사이에 ( $F=5.7$ ;  $df=3$ ;  $p=0.00$ ) 나타났다. 결과의 변인별 분석은 다음과 같다.

#### 1) 자극물의 연령별 치마길이 규범

자극물의 연령에 적합하게 생각되는 치마길이는 존재한다. 따라서 한국사회의 연령별 길이 규범은 뚜렷하며 연령대에 적절한 치마길이가 있다. 윤곽도의 무릎길이는 53.5cm라고 설정되었으므로, 개인이 판단한 자극물의 연령별로 적합한 가장 짧은 치마길이는 25세여성자극물의 경우 39.9cm(무릎위 13.6cm), 35세 48.3cm(무릎위 5.2cm), 45세 58.5cm(무릎아래 3cm), 55세 83.9cm(무릎아래 10.4cm)이다<표 3>. 이는 미니스커

<표 3> 자극물의 연령별 치마길이 규범의 평균(SD)에 대한 일원변량분석 및 Duncan 검증 결과(단위 : cm)

자극물 연령	25세	35세	45세	55세	F
치마길이 평균(SD)	39.7 <sup>a</sup> (7.8)	48.3 <sup>b</sup> (8.1)	56.5 <sup>c</sup> (8.8)	63.9 <sup>d</sup> (11.0)	545.5***

<표 2> 개인의 치마 규범의 평균, 최빈, 최소, 최대치(단위 : cm)

연령	자극물		개인의 치마길이 규범			사회적 추정된 치마길이 규범		
	평균	최빈치	최소치	최대치	평균	최빈치	최소치	최대치
25세	39.9	40	25	62	43.4	43	19	60
35세	48.3	50	25	89	50.9	54	30	87
45세	56.5	57	35	91	58.8	57	34	89
55세	63.9	71	28	91	67.3	71	39	95

트가 유행 할 때 미국 잡지에서 제시했다는 연령별 적정길이, 즉 3세 아동의 어머니는 무릎 위 10cm 짧게, 할머니는 무릎이 살짝 드러나는 정도의 길이<sup>15)</sup>와 비교하면 연령간 정확한 비교는 할 수 없으나 할머니의 연령을 최소한 45세 이상이라 볼때 할머니의 치마길이는 본연구의 것이 약간 길게 보인다. 이것은 미국과 한국의 문화적 차이 혹은, 본 조사의 계절이 가을이었던 점에서 그 이유를 찾을 수 있을 것이다.

### 2) 지각자 성별의 영향

위에서 본대로 ANOVA검증결과 성별의 주효과 및 단서의 연령과 성별사이의 이원상호작용효과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으므로 치마길이 규범에 대해서는 남여가 유사한 태도를 보인다고 볼 수 있다. 이는 남성이 일반적으로 여성보다 성적 자극을 주는 인상을 선호한다는 선행연구<sup>16)</sup>와 반대되는 결과이다. 그러나 다음의 논의

<표 4> 지각자 연령에 따른 치마길이 규범의 평균(SD) 차이(단위 : cm)

지각자 연령	20대	40대 이상	F
치마 길이	51.3(14.0)	53.4(10.4)	10.5**

에서 보듯이 남성의 성적자극 선호경향은 자극물의 연령과 지각자의 연령과의 상호작용이라는 보다 복합적인 관점에서 다루어야 할 문제로 보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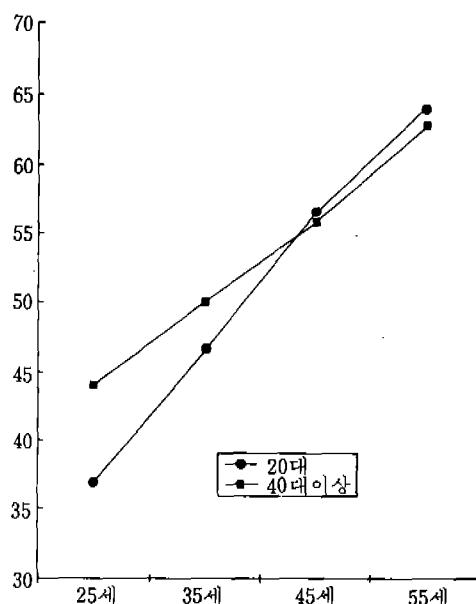
### 3) 지각자 연령의 영향

지각자의 연령은 표집구성의 수적 균형을 맞추기 위해 20대와 40대 이상으로 구분되었다(표 1 참조). 지각자연령은 주효과를 가진 변인으로 나타났으며(표 4), 자극물의 연령과 상호작용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그림 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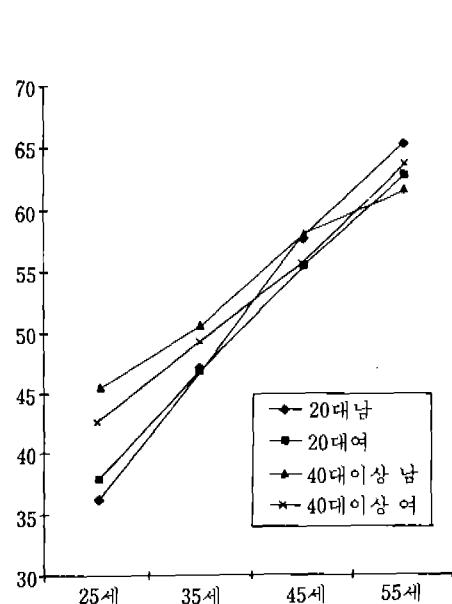
지각자 연령은 전체 평균으로 보아 20대가 40대 이상 보다 짧은 길이를 제시한다. 모든지각자는 자극물의 연령이 증가할수록 긴 치마길이를 제시하고 있으나 40대 이상 지각자는 45세, 55세 여성자극물에서 20대지각자 보다 짧은 길이를 제시한다. 이것으로보아 지각자는 자극물의 연령이 자기의 연령과 유사할 때 그렇지 않은 지각자보다 완화된 규범을 설정하게되는 것 같다. 이것은 자극물의 유사성이 지각자의 호감을 유도한다는 연구보고를 간접적으로 지지하는 결과이다<sup>17)</sup>.

단서의 연령, 지각자 연령, 성별의 3원 상호작용은 [그림 3]과와 같다.

20대 남자지각자는 25세, 35세 여성자극물에게 4집단 중 가장 짧은 치마길이, 45세, 55세 여성에게는 가



[그림 2] 치마길이 규범에 대한 지각자 연령과 자극물의 연령간 상호작용.



[그림 3] 치마길이 규범에 대한 자극물의 연령, 지각자 연령, 지각자 성별간 상호작용.

장 긴 치마길이를 제시한다. 이것은 짧은 치마의 성적 자극성과 관련있는 결과로 보인다. 즉, 짧은 치마는 성적자극을 주는 대표적 의복의 하나이므로 이 결과는 일반적으로 남성들이 여성의 성적자극을 중시한다는 선행 연구결과<sup>16)</sup>를 부분적으로 지지하는 결과이다. 본 연구에서 남성지각자가 여자지각자보다 짧은 치마길이를 적합한 것으로 규정하는 태도는 20대 남성지각자의 25세, 35세 여성에 대한 태도에 한정되어 있다. 이것은 20대 남성은 25세, 35세 전후의 여성만의 성적자극성을 의미 있는 자극으로 본다는 의미일 것이다. 20대 남성은 45세와 55세여성에게는 다른 지각자집단보다 긴 길이를 요구함으로서 이들 연령에게는 품위와 정숙성을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와 같은 결과는 40대가 20대보다 정숙성을 중시한다는 고애란의 연구결과와 부분적으로 일치하는 결과라고 볼 수 있다<sup>18)</sup>

반면 40대이상의 남성지각자는 25세, 35세 여성자극물에게 지각자집단 중 가장 긴 길이를, 50대 여성에게는 가짱 짧은 길이를 제시한다. 이는 본 연구의 표집 중 남성지각자가 50대에 편중되어 있는 탓이다. 즉, 25세, 35세 및 45세 여성에게까지 가장 긴 길이를 요구하던 보수적 지각자가 55세여성에게는 지각자 집단 중 가장 짧은 길이를 제시하고 있다. 이는 연령의 유사성에 의한 관대성의 효과와 아울러 자극물의 연령의 증가로 인해 의복으로 인한 성적 자극성에 대한 우려는 가벼워지고 대신 촉용자의 활동상의 기능적 측면을 배려하게 된 것으로 생각된다.

20대여성지각자는 25, 35세 여성자극물에게는 20대, 40대 이상 남자보다 긴 길이를, 45세 여성자극물에게는 이들보다 짧은 길이가 적합하다고 본다. 이는 20대여성 지각자가 20대남성지각자에 비하여 여성의 연령에 대해 짧은 여성과 짧지 않은 여성으로 나누는 이분법적인 생각을 덜 가지고 있어서 치마길이를 연령증가에 따라 점진적으로 길어지는 것으로 보는 때문으로 풀이된다.

40대이상 여성지각자는 45세여성자극물에게 20대, 40대 남성보다 짧은 길이를 제시한다. 이것은 40대 이후 여성의 의복형태와 정숙성 개념의 분리운영에 대한 자신감의 표현, 혹은 현 문화의 ageless 경향에 대한 여성의 보다 적극적 동참의식 때문이라고 볼 수 있다. 이와 같은 태도는 40대 및 50대 이상의 주부들의 58%가 '나도 Missy'의식을 갖고 있다는 백화점의 고객조사 결과가 지지한다<sup>18)</sup>. 이와 같은 결과는 의복지각에 있어

여성이 정숙성을 더 중시한다는 선행연구결과<sup>16)</sup>는 지각자와 자극물의 연령에 따라 달리 나타날 수도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 2. 치마길이에 대한 개인규범과 일반화된 타자 규범 간 차이

치마길이에 대한 개인의 규범과 일반화된 타자간 규범의 평균 및 그 차이는 <표 5>와 같다.

<표 5> 치마길이에 대한 개인규범과 일반화된 타자규범의 평균 및 차이

자극물	20대 이상			40대		
	연령	자기규범	타자규범	차이	자기규범	타자규범
25세	37.1	41.3	-4.4	44.2	46.3	-2.1
35세	46.9	50.1	-3.2	50.3	51.7	-1.4
45세	57.0	59.0	-2.0	56.1	58.5	-2.4
55세	64.5	69.4	-4.9	62.8	63.9	-1.1

개인규범과 일반화된 타자간 규범의 차이에 대한 자극물의 연령, 지각자 연령, 성별의 효과를 알기위해<자기규범-추정된 타자규범>의 값을 종속변인으로, 단서의 연령, 성별, 지각자 연령을 독립변인으로 한 ANOVA검증을 하였다. 그 결과 주효과는 단서의 연령( $F=2.7$ ;  $df=3$ ;  $p=0.4$ ), 지각자연령( $F=21.9$ ;  $df=1$ ;  $p=.00$ )에 나타났으나 성별의 효과는 없었다. 단서의 연령과 지각자연령 간에 이원상호작용효과( $F=4.3$ ;  $df=1$ ;  $p=.00$ )가 나타났다.

### 1) 자기규범과 일반화된 타자규범의 추정치 간 차이

각 개인이 추정한 자극물이 연령별로 적합한 길이와 일반화된 타자들이 적합한 것으로 보는 길이의 추정치를 두 변인으로 하여 짹진 t 검증을 한 결과는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표 6>. 즉, 이 연구의 표집대상들은 자신의 규범과 다른 사람들의 규범사이에 차이가 있다고 생각한다. 이들은 일반적 규범보다 자신

<표 6> 개인규범과 일반화된 타자규범의 치마길이(단위: cm)에 대한 짹진 t검증

규범의 종류	자기규범	타자규범	t
치마길이	52.1(12.8)	55.0(12.3)	-14.4***

들이 더 짧은 길이를 허용하는 규범을 갖고 있다고 생각한다. 이것은 사람들이 의복의 규범에 대해서는 자신이 추정하고 있는 일반화된 타자규범으로부터 어느정도 이탈하고자 하는 성향을 갖고 있음을 의미하여, 스스로를 보편적인 사람들보다 보다 관대하거나 혹은 진취적인 규범을 가진 사람으로 지각하고 있다는 의미이다.

## 2) 개인과 일반화된 타자의 치마길이규범 간 차이에 대한 연령의 영향

<표 7>에 의하면 규범간 차이는 20대가 40대의 거의 2배에 이른다. 이 결과는 일명 '신세대'로 불리는 이들 연령군이 일반적 규범에 동조하지 않고 있다는 사회적 통념을 지지할뿐 아니라 비동조성에 대한 스스로의 자의식도 뚜렷하게 높음을 보여준다.

자극물의 연령과 지각자 연령간 치마길이규범차이의 상호작용의 효과는 [그림 4]와 같다.

전반적으로 보아 자극물의 연령이 높아질수록 다른 사람들과 자신의 길이규범이 유사한 것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 그러나 20대 지각자는 55세, 40대 이상 지각자는 45세 여성의 치마길이에 대해서는 자기들이 다른 사람들보다 짧은 치마길이를 허용한다고 생각한다. 이와 같은 태도는 20대 지각자가 55세 여성에 대한 일반적인 치마길이규범이 빌목길이 정도로 길 것으로 추정하는데서 나타난 결과이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 나타난 바로는 40대 이상 지각자(일반적 타자의 보수적 하위집단으로 볼 수 있는)의 개인적 치마길이 규범은 그보다 훨씬 짧다 따라서 20대 지각자는 55세 여성의 치마길이에 대한 일반적 규범을 실제보다 보수적일 것으로 추정하는 경향이 있다고 볼 수 있다.

40대 이상 지각자에 있어서 두 규범 간 차이는 45세 여성자극물의 경우에 가장 크다. 즉, 40대 이상 지각자는 45세 여성에 대해서는 일반적 규범에서 크게 벗어나는 짧은 길이를 자기 자신의 개인적 규범으로 제시함을 볼 수 있는데, 이는 지각자와 자극물 간 연령의 유사성에 의한 관대성 효과로 보인다.

## V. 결론 및 제언

본 연구의 가설 1-(1), 1-(3), 2-(1), 2-(3)은 긍정되었고 1-(2), 2-(2)는 부정되었다. 따라서 여성의 연령에 따라 적합한 여성의 치마길이규범은 존재한다. 치마길이에 대한 지각자의 독립적인 성별효과는 부정되었으나 독립적 연령효과는 긍정되었다. 그러나 지각자 성별효과는 연령과 상호작용을 통해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여성의 치마길이에 대한 규범에는 지각자의 성별보다 연령의 영향이 크며, 지각자의 성별은 지각자의 연령 및 자극물의 연령과의 관계 속에서 일정한 패턴을 지닌다고 볼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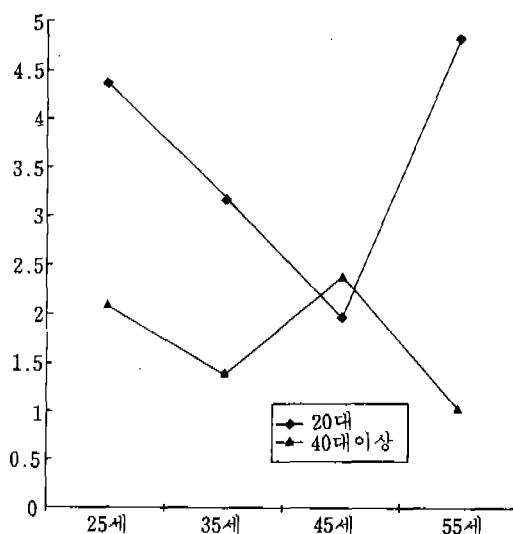
구체적인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본 연구결과에 의하면 여성의 연령별 길이규범은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미니스커트가 유행하는 현재 상황에서 외출시 연령에 적합한 가장 짧은 치마길이는 25세의 경우 39.9cm(무릎위 13.6cm), 35세 48.3cm(무릎위 5.2cm), 45세 58.5cm(무릎아래 3cm), 55세 83.9cm(무릎아래 10.4cm)이다.

지각자의 연령은 치마길이에 영향을 끼쳐서 전체평균으로 볼 때 20대지각자가 40대 이상의 지각자보다 짧은 길이를 적합하다고 본다. 그러나 자극물의 연령과 지각자 연령 간에는 상호작용이 나타났다. 모든 지각자는

<표 7> 개인과 일반화된 타자의 치마길이 규범(단위 : cm)의 차이에 대한 연령별 t검증

지각자 연령	20대	40대 이상	t
규범 간 차이	-3.7(9.0)	-1.8(6.0)	-5.0***



[그림 4] 자기규범과 일반화된 타자규범간 차이에 대한 지각자 연령과 자극물의 연령간 상호작용

자국물의 연령이 증가할수록 긴 치마길이를 제시하고 있으나 40대이상 지각자는 45세, 55세 연령의 자국물에게 20대지각자보다 짧은 길이를 제시했다. 이것으로 보아 지각자는 자국물의 연령이 자신의 연령과 유사할 때 높아질 때 보다 그렇지 않은 지각자보다 완화된 규범을 설정하게 되는 것 같다. 이것은 자국물의 유사성 지각자의 호감을 유도한다는 연구보고를 지지하는 결과이다<sup>17)</sup>. 또한 지각자의 연령, 성별과 자국물의 연령간에도 상호작용이 나타났다. 25세, 35세의 자국물에 대해서는 다른 집단에 비해 20대 남성 지각자가 가장 짧은 길이를, 40대 이상 자국물에 대해서는 전반적으로 여성 지각자가 남성지각자보다 짧은 길이를, 55세 자국물에 대해서는 40대 남성지각자가 가장 짧은 길이를, 20대 남성 지각자가 가장 긴 길이를 적합한 길이로 제시하였다. 여기에는 남성의 전반적인 성적 자국성 기대효과 및 지각자와 자국물간 연령의 유사성에 의한 관대성 효과가 작용하였으나, 그 외에도 자국물의 연령이 암시할 수 있는 성자국성, 차장자의 활동용이성에 대한 배려, 연령에 대한 존대감 등의 가외 변인이 있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본 연구의 표집대상은 일반적 타자의 규범보다 자신들이 더 짧은 길이를 허용한다고 생각하며 이와 같은 생각은 20대 지각자의 경우, 40대 지각자보다 월등하게 크다. 이것은 일명 '신세대'로 불리는 이들 연령군이 일반적 규범에 동조하지 않고 있다는 사회적 통념과 일치 할 뿐 아니라 이들의 비동조적 행위가 비교적 적극적 자의식을 가진 행위임을 나타낸다고 볼 수 있다.

또한 규범 간 차이에는 자국물의 연령과 지각자의 연령 간 상호작용도 나타났다. 일반적으로 자국물의 연령이 증가할수록 자신의 규범이 다른 사람의 규범과 일치 하리라고 보는 성향이 커지나, 20대 지각자는 55세, 40대 이상 지각자는 45세 여성의 치마길이에 대해서는 자기들이 일반인들 보다 짧은 치마길이를 허용한다고 보는 경향이 있다. 이는 20대 지각자가 55세 여성에 대한 일반적 타자의 길이 규범이 대단히 보수적인 것으로 추정하는데서, 또 40대 이상 지각자가 자신들과 연령이 유사한 자국물에 대해 관대한 태도를 보임으로서 나타난 결과로 풀이된다.

본 연구결과 각 연령에 따른 적정길이규범이 존재함이 밝혀졌으므로 연령에 따른 의복형태 규범은 청춘예찬적 분위기 속에서도 견제함을 알 수 있다. 비록 일률

적 의복형태가 유행할지라도 기성복 제작에 있어서는 연령에 따라 차별화된 치마길이를 염두에 둔 디자인이 요구되며, 나아가서는 연령에 따라 보다 세분화된 표적 시장을 갖는 것이 현실에 맞는 마케팅 전략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한편 치마길이에 대한 자신의 규범이 일반화된 타자의 규범과 다르다고 보는 정도가 크고, 또 이와 같은 의식은 지각자의 연령이 낫을수록 강하므로, 미래의 연령규범은 계속 수정과 도전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여성의 연령에 따른 의복규범과 관련변인과의 관계를 보다 명확하게 규명하고 그 결과를 일반화하기 위해서는 본 연구에서보다 다양한 연령의, 보다 업종한 표집법에 의한 표집이 요구된다. 또한 본 연구에서 고려된 변인 외에도 자국물의 신체특성, 지각자의 직업, 지각자의 연령에 대한 태도 등 인구통계적, 심리적 변인을 고려하여 실제 상황을 재현한 연구가 요구된다.

## 참 고 문 헌

- 1) Lurie, Alison. 1976. 유태순 역. 1986. 의복의 언어 (The Language of Clothes). 서울 : 경춘사. p. 44.
- 2) ① Bush, George and London, Perry. 1930. "On the Disappearance of Knickers: Hypotheses for the Functional Analysis of the Psychology of Clothing". Dress, Adornment and the Social Order. Ed. by Roach, M.E. and Eicher, J.B. 1965. N.Y.: John Wiley & Sons, Inc. pp. 4-72.
- ② Horn, Marilyn J. and Gurel, Lois M., 1981. The Second Skin. 3rd ed. Boston: Houghton Mifflin Co., p. 193.
- ③ Bond, David. 1988. The Guinness Guide to 20th Century Fashion. London: Guinness. p. 104.
- 3) ① Horn, Marilyn J. and Gurel, Lois M., op., cit., p. 193.  
② Lurie, op., cit., p. 35.
- 4) Bond, David. op., cit., p. 178.
- 5) Rouse, Elizabeth. 1989. Understanding Fashion. London: BSP Professional Books. p. 211.
- 6) 섬유저널. "Ageless현상이 시장을 뒤바꾼다". 1994년, 12월, pp. 255-257.
- 7) Benaim, Laurence. 1988. L'Année de la Mode 88-89. Lyon: La Manufacture. pp. 54-65.
- 8) ① Hoffman & Bader. 1964. Social Science Aspects of Clothing for Older Women. Dept of Home Ec. and Institute of Gerontology. State Univ of Iowa.

- ② Horn, Op. Cit, p. 193.
- ③ Lurie, Op. Cit, p. 49.
- ④ Charles Gandee. "Dressing Your Age", *Vogue*, Nov, 1993, N.Y., pp. 296-300.
- 9) 김경동. 1981. 현대의 사회학. 서울 : 박영사. p. 234
- 10) Lewis A. Coser. 진용하, 박병규 공역, 사회사상사. 1978. 서울 : 일지사. p. 516.
- 11) 전병재, 1981. 사회심리학. 서울 : 경문사. p. 181.
- 12) Miyamoto, S.F. & Dornbusch, S.M., 1956. A Test of interactionist hypotheses of self-conception, *American Journal of Sociology*, 61: 399-403.
- 13) M.S. Ryan. 1966. Clothing: A Study in Human Behavior. New York: Holt, Rinehart & Winston. p. 83.
- 14) 산업제품의 표준체설정을 위한 국민 표준체위조사보고서. 1992. 공업진흥청. KRISS-92-144-IR.
- 15) Lurie. op., cit., p. 45.
- 16) ① Williamson, S., and Hewitt, J. 1986. Attire, Sexual Allure and Attractiveness. *Perceptual and Motor Skills*, 63, pp. 981-982.
- ② Rosenwasser, S.M., Adams, N., and Tansh, K. 1983. Visual Attention as a Function of Sex and Apparel of Stimulus Object: Who Looks at Whom? *Social Behavior and Personality*, 11, pp. 11-15.
- ③ Kaigler-Evans and Damhorst, M.L., 1978, Impression Formation: Use of Descriptors of Personal Traits. *Perceptual and Motor Skills*, 46, pp. 903-906.
- 17) ① Byrne D. E. 1971. The Attraction Paradigm. New York: Academic-Press.
- ② Hensley, W. E. 1981. The Effects of Attire, Location, and Sex on Aiding Behavior: A Similarity Explanation. *Journal of Nonverbal Behavior* 6(1), pp. 3-11
- ③ Kaiser. 1990. The Social Psychology of Clothing. 2nd Ed. New York: Macmillan Publishing Co.에서 인용. p. 324.
- 18) 고애란, Suit의 색과 신체노출이 정숙성 인상에 미치는 영향, 1990, 연세대 의생활학과 박사학위 논문.
- 19) 조선일보. 1994년 11월 11일. "40~50대 주부 58% '나도 미시'".